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浮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沈滯된中國形勢

一

近者中國의形勢는 적지沈滯하게되엿다 武漢派의急進的運動도 한풀이꺽겨서 바야흐로도消極的態度를가지고 南京派에서 揖旨하든 武漢政府統一의計劃도 여러가지關係로이러타할發展이업스며 이러니저러니 거의각각呉佩孚系諸人의 關係도적시원한일도업시 다만張作霖의奉天派가 大部의勢力을잡어서 은근히武漢을威脅하고잇슬뿐이다 이리하야左右翼의分裂運動은 지금자못赤白兩色이아닌 氣勢가엿기가시작한革命이 올러얼키운 幼年病에걸렷다하겟다 그러나中國의形勢가 이가티沈滯하야진理由는 첫재左右翼의分裂로因함이오 둘재로는 列國外交가協調되지못한데잇다할것이다

二

向者五國協調가 畢竟애여커서 英帝國의强硬政策이 어쐬할수업시된것을指摘하고 日本의政治家들이 率爾히움직이지말것을說한바이엇다 英國의對中態度가 아모리焦燥하는바잇더라도 米가이에 協調치안코 日本이또冷淡한態度를 고치지안는限에는 드대어어쐬하지못할것이오英 米 日等諸國이이미그러하다하면 中國의對外關係는 우선安心할밧게업는것이다 向者米國의前國務卿『휴쓰』氏는 中國의責任잇는政府와自由制度의確立을 援助할것을言明하엿다 氏의言明은적더라도現政府黨인共和黨의意見이라할것이오 民主黨의意見은 이보담도더욱緩和할것을도推定할것이다 하믈며現政府의首腦에依하야發表된 列國의聯合强硬政策을 反對한다는것은 疑惑되든米國의態度가 더욱鮮明하여진것이다 米國의이러한態度와아울러 英國이또한强硬政策을斷念하고 南中國方面에 推動되는外交的低氣壓은 우선一掃되엇다

三

米國을비롯한 列國의態度가 이토록緩和된것은 첫재南京事件이란者가 論者의預測한바와가티 그대지重大치 안햇섯고 但만아니라 右翼派의活動과및左翼派의退却이 彼等에게적이安心을준外에因함이다 近者中國의消息은 매우區區하야準信키어렵우나 武漢派의氣勢가 發해졌어서 다시急進的活動을하지안코 國民黨에關한宣傳이자못활大한양하지도 아즉大는것이 冷靜한觀察者의 가장着眼함을要할者이다 最近의消息에依하면 廣東의省政府는管內無職勞働者의 生活費를支出하기에 莫大한困難을늣긴다하거니와 產業機關을閉鎖하고 資本家들을罷息케하야 一時에勞働者를煽動하야노코 그의救濟策을案出할수업는것은 비록革命自體가 非常한事變인것임을承認하고서일지라도 매우潜心追究함을要하는 歷史的課題이될것이다 一擧에社會를改造할수업는事勢인以上 左翼派의困難은想像할만하다 여기에서中國의形勢는 沈滯하지아니할수업다

四

近者北京으로오는消息은 或은張廣의妥協을傳하고 張唐의提携를說하고 其外에도前後矛盾되는바가매우만타 이것은彼等의慣用하는宣傳으로서 無異武漢派가準信하기어렵다 南京派의相互間의消息도 또한北으로부터밧는威脅이 相當히크다하고 그의態度가이미大部緩和되엇스며 蔣氏의對武漢方策이또한急激히할수업나니 彼等은結局어떠한方式으로든지合同될可能性이잇다할것이다 昨秋로부터 今春에걸치어 革命派의勢力이 한참天下를席捲하얏스나 一擧에곳全國을統一하기를豫想하든것은 돌이어迂遠한者이라 吾人은革命派의今後가 沈滯期를通하야 다시北進의新時期가올것을信하려한다

漢口日居留民 積極的實施要求
政府에서要求를不容하면 即時撤退를決議

(東京電) 漢口發海軍省九日着電=漢口日居留民團商業會議所는各其五日臨時總會를開하고政府에積極的局面打開策實行을要求하야萬若不容함에在하야서는이우에더隱忍키難함으로在留民은即時撤退를斷行할旨로滿場一致의決議를行하얏더라

山東軍飛機 南京에爆彈投下
重輕傷者十數名

(東京電) 南京發九日海軍省着電=五日正午山東軍飛行機一臺는南京에飛來하야爆彈八個를投下하얏는데其中三個는重輕傷者十五名을내이엇스며 또다시午後二時에一機가飛來하야四個를投彈하야三名의負傷者를내엇더라

南京政府에서 國庫證券令公布

(東京電) 外務省着=南京政府는財政難脫出策으로國債發行計劃中이던바去八日에드듸어國庫證券條令을公布하얏다右內容은國庫債券三千萬元을發行하야利率七分擔保는五月以後의二分五厘關稅附加稅로하는것이라더라

英國은新嘉坡에 海軍根據가必要
잉그렘博士의意見

(倫敦九日發) 倫敦敎區監督『위닝돈·잉그렘』博士는九日世界漫遊를終하고歸着하얏는바博士는 英帝國의軍商과濠洲『뉴우지렌드』의保有를完全하게하랴면吾人은『新嘉坡』에大規模의海軍根據地를持하지안흐면아니된다余는日本에寄航하얏슬때右新嘉坡根據地問題에關하야日本人이特히尤奮하는것은보지못하얏다고述하엿다더라

002579

國際經濟會議 九日再開會
商工農三委員會審議開始

(제네바七日發) 國際聯盟經濟會議는七日午後로써中止하게되엇고九日부터商工農三委員會의審議를開始할豫定이더라

臺銀上海支店 開業後至極順調
爲替市場에도好感을주어

(上海九日發) 三週間만에開業한臺銀은休業中特히中國人方面에對하야信用維持에對하야宣傳한것과二大法案議會通過에一層不安의念을除去하야아츰以來預金支拂도至極順調로되엇고또한同行으로서도預金總額約四百萬『테일』이全部引出될것이라고하야充分히用意하야둔바 玆에二、三個月이면復態에回復할터이며爲替市場에도日本向四分의一이撥返되어爲替市場에도好感을與하야조금도不安이업는바午前中의引出은小口만으로約二、三十萬『테일』에不過하얏다더라

採掘中의 聞慶無煙炭
埋藏炭量豊富

慶北聞慶郡麻城面戶西南面虎溪面加恩面等의四面에介在한日本大阪市原商事會社의經營하는無煙炭坑은目下五十餘名의人夫를使用하야採掘하는中에잇다는바此地에는一萬噸의無煙炭이埋藏되어잇는데年末外지에는一萬噸의無煙炭을採掘할豫定으로目下炭坑用地五萬坪을買收하려고該地主와交涉中이라하며其採掘한無煙炭은炭坑으로부터慶北線終點인醴泉店村驛外지軌道를敷設하고運搬하야各需要地에供給하리라는바前途가頗히有望하다더라(尙州)

新黨의黨首
幣原男說

(東京電) 新黨俱樂部의結黨式期日은黨則宣言의起草와憲本兩派中黨外의新勢力加入運動과또는各議員의地方諒解로臨時議會終了後相當히期間이걸릴터임으로延期될터인데新黨成立에對하야重要案件인黨首問題에對하야若槻氏를推戴할수밧게업는情勢에잇스나最近前外相幣原喜重郞氏를推戴할것이라는說이遂行

群山印工 革新總會
◇六條項決議

群山印刷職工組合革新總會는去七日夜群山勞聯會館에서開하고崔相璨氏의開會宣言과崔東吉氏의意味深長한開會辭가잇슨後臨時議長金俊鏞 同署로全北印刷職工大會發起等을決議하엿스며無頭委員制로外委員을選擧한後同夜十二時에閉會한바決議事項及委員氏名은如左하다더라(群山)

◇委員 ▲庶務部崔相璨宋漢基▲經理部韓正山趙軍烈▲敎養部張志訓▲體育部金允宰▲救濟部丁東根高正良▲調査部金斗福萬

◇決議事項
一、勞働問題에關한件
一、敎養에關한件
一、消費購買組合에關한件
一、同業組合對本組合態度決定의件
一、全朝鮮印刷職工聯盟加入及促進의件
一、全北印刷職工大會發起의件

滿鐵에移管된 在滿普通學校
◇…實施는六月一日부터

總督府學務局長李軫鎬氏는滿洲各地에서視察을마치고歸途에安東을經由하야五日朝入京하엿는바그視察한바에依하면滿洲沿線及外務省所管의普通學校는六月一日부터滿鐵本社學務課에移管하게되어從來에支出하든在滿朝鮮人敎育、補助契約二萬圓을滿鐵에提供하게되엇는데移管된後에도職員의異動가튼不祥事는업스리라더라(安東縣)

德川隣郡의 郵便物通行
不便과一般의希望

平南德川、孟山、寧遠三郡에오는郵便物은海內外어느곳으로오는것을勿論하고平壤을經由하야自動車로寧遠外지가게되는바自動車線路가長距離임으로冬夏兩節에는時히自動車의故障이만흠뿐만아니라途中에는大同江을數次渡航케됨으로春秋로는江의半氷夏節에는洪水로因하야車가定刻에到着치못함은勿論이오交通이全然杜絶될때가만허서自然郵便物이遲滯되어一般의損害와不便이不小하다는데이에一般은新安州驛을거처平安自動車便으로郵便物이到達되기를希望한다더라(德川)

米豆移搬出
移出地及數量

元山四月中

四月中元山에서日本及道外에移搬出된米豆의移出地別及數量은 ▲玄米 大阪一二、六二〇 神戶七五〇 東京二七、六〇八 敦賀五、六五〇 宮津三一二 舞鶴八五〇 新潟二五〇 合計四八、〇三〇叺 ▲白米 宮津一〇三三 敦賀四二〇 神戶七五一 道外移出八〇 合計一六六八叺 ▲大豆 大阪三〇〇 神戶一〇六八 東京一七五〇 敦賀一一、一八〇 舞鶴九五五 下關四〇〇 門司二八八 伏木九八〇 七尾二〇〇 小豆島一、五〇三 宇品四三五一 道外搬出一七 合計二三一〇三叺 ▲小豆 敦賀一〇五〇 이며倘且昨年十一月以降으로今年四月末外지의移搬出累計는玄米二十三萬四百三十九叺白米二萬三千七百十一叺大豆三十萬二千四百四十七叺小豆二千五百四十叺로서移出의最大地는玄米는東京白米는大阪等이라더라(元山)

三千浦에 記者團組織
十日創立總會

慶南泗川三千浦에잇는各新聞支局에서는言論의權威를伸張發揮하고社會裡面에잠겨잇는모든事實을檢擧하야嚴正한社會輿論의批判에附하는同時에同職의親睦을統一키爲하야記者團을組織中인바創立總會는十日午前十一時에本報三千浦支局에서開催한다는데準備委員은왼에와갓다더라(三千浦)

◇準備委員=泗川(朝日)姜樂生 三千浦(朝日)姜鵬秀

慶南居昌에 電話交換開始
本月末頃부터

遞信局에서는慶尙南道居昌에市內電話를開始코저計劃을進行中이든바本月末頃부터市內線架設工事에着手함과共히加入申請의受理를開始하엿는데目下加入希望者가約四十名에達하엿다더라(居昌)

群山市民 運動續會
엉더리團優勝

旣報=群山開港三十八週年紀念으로五月一日에群山平和園主催로各新聞支局後援下에市民大運動會를開하엿든바當日降雨로不得已蹴球의決勝은去八日(十五日同報)午後一時부터群山市民運動繼續會가普校運動場에서開하엿는데豫選水府校對엉더리團의交戰은四對零으로水府軍이慘敗하고米穀商會軍과엉더리團의交戰은二對二로勝負가나지안어서다시決勝戰하다가結局二對三으로米穀軍이惜敗하고엉더리團이優勝旗를엇게되어午後五時半頃에散會하엿다더라(群山)

坪山面普校 高等科新設
學生五十餘名

咸南北靑郡坪山面坪山普通學校에서는同校의卒業者로서學資困難으로上級學校에入學치못하는者와又는近地普通學校六學年卒業者로서岐路彷徨하는少年들을爲하야卒業後의指導方針으로現代生活上必要한知識을敎養코저高等科를新設하고卒業年限은一個年으로하얏스며擔任先生李致鎬氏外에李壽國、李斌鎬、李虎俠、李守昌、李瑞年諸氏의名譽敎授로目下學生이五十餘名에達하얏스며坪山靑年會에서猛烈히後援을하는데前途有望하다더라(北靑)

尙州麯子組創設

慶北尙州에서는酒類製造及販賣業者六十餘名이지난六日市內朴圓西家에會集하야尙州麯子組合을組織하엿다는바從來의自家用麯子製造免許者는六百四十名(此麯成石數約千石)은此로因하야許可取消가되엇스며今後에는全部該組合에서尙州郡一圓朝鮮酒製造石數一萬九千石에對한麯子所要石數二千四百石을製造하야各酒類製造業者에게配布한다는데郡當局에서는此를積極的後援指導한다하며그反面에前記六百四十餘名의家庭副業者는一齊失業케되엇는바一般은該組合의將來發展如何를注目한다더라(尙州)

盛況으로開幕된 關西記者大會
◇…去六日부터寧邊에서

旣報=關西記者大會는去六日午後八時부터大會場인寧邊監理敎禮拜堂內에서本團第三回大會를開하얏는데團員이累百名에達하엿고參席客이數百名에達하엿는데常務金公善氏의開會宣言과開會辭가맛치자常務鄭應瑞氏의沿革報告와京城無名會天道敎靑年黨等其他十五通의祝電과二通의祝文을朗讀한後來賓中呂履鳳氏의祝辭가잇고大會는意味잇게맛치엇다더라

新聞講演會
各演士의熱辯

大會式을이어서新聞講演會를開催하엿는데金秉杰氏는言論機關과記者團이란題로東亞日報社特派員崔元淳氏는新聞記者資格에對하야란題로心身의疲困엄舍不拘하고長時間에亘한熱辯을吐하엿다더라

第五回委員會

去六日下午四時半부터關西記者團臨時事務室인平北寧邊邑內第一旅館內에서本團의五回委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討議하엿다더라
一、今夜新聞講演에朝鮮日報社特派演士安在鴻氏의有故未參한代에金秉杰氏로代하야演士를選定한것

◇決議事項
一、左記十個條件을明日本總部에提案할것
가、規則改正의件
나、決議의件
다、委員改選의件
라、本社對記者의件
마、不公正한言論機關의件
바、開闢社對白象圭의件
사、新幹會에對한件
아、來大會開催地決定의件
자、事業決定의件
차、各道記者團聯合發起의件

方丈山再遊記(一)
崔昌淳

民世兄! 나는今春에方丈行을再擧하얏습니다 方丈山、頭流山、智異山은이러케이름이만흔만큼智異山은名山이오또神山입니다 昨春에河東雙磎寺에열렷든嶺湖南記者大會를마친後 八十餘人의男女性同志들과蟾津江上에서餞別하고 兄님과撫松朴炳光兄들을모시고 七佛庵을거처어般若峰을올라갓다가 風雨에쫏기고氷雪에파뭇처七顚八倒九死十生으로南으로求禮의華嚴寺를내려간다는길이 北으로靈峰의實相寺를넘어가게되어 探勝이冒險化하엿든일을記憶하면登山恐怖症이날것입니다마는『無識者登山與無錢者觀市同』이란古語와가티돈업는놈이매장친다는 學識업시探勝하기조와하는特性怪癖이잇는나는 般若峰을올르스두天王峰이憧憬되어 그때決心하엿든明春再擧를實現하려하엿나이다 再擧를작하는날 어지兄님을思慕하지아니하릿가 同伴못한遺恨을이글월로서풀고저할뿐이니라 後日兄이再遊의機會를만드시면 내가嚮導者가되려고하며 爲先大略을紹介하려합니다 連日豪雨가겨우근치어 한울이맑고구름이개이든四月二十一日에나는行李를다스려우리支局顧問인松亭朴泰奎兄과作伴하야自働車를몰아南海沿岸의봄경개를달아낫나이다 海陸產物을吞吐하는全南의一良港인栽楊浦를지나小江南이라일컷는關天邑을돌여急勾配險勾配로蛇曲한 支離한小드人재(松峙)를넘어서水落山峰을건너다보고돌구령에서

어잇는驚山庵을指點하면서綠下流나두人배를건너 求禮邑을들려서華嚴寺에들어갓나이다 民世兄! 兄도아시거니와 智異山据縱水는 淋疾 脚氣 腰痛等諸病에神効가잇다하야 穀雨前과後三六日間은 年中行事로嶺湖士女가만히모혀 허리띄를늘으추고 배人속이찌뎌지쪗이되도록먹지안습닛가? 나도배人속에든간이 자라알듯또도록먹어보왓습니다 溫泉에는권다리만모으는것이아니라가러야智異山에는 淋疾患者만모힌것이아니라 豪華客風流郎이多數입니다 智異山餘麓 各寺刹各沿路에 自動車 人力車 竹杖芒鞋客이 길이메이도록往來가繁雜합니다 華嚴寺에서點心을먹고 다시求禮邑으로내려와 自動車는돌려보내고蟾津江을橫斷하는 飛行船을타게되엿습니다 求禮蟾津間飛行船은日本人經營인데定員五十人이될만하고 速力은十分間에十五里를疾走한다합니다 蓋

江兩岸의奇岩怪石과異花巧禽은 말할것도업거니와 구비구비明沙야말로 海棠花代身에叢竹이密密하야 瀟湘江의지든風景을말합니다 花開市로내려갈제 아모리나의遲鈍한觀感이라도興趣를자아내지안흘수업섯나이다마는 멀리寶城 同福方面材木商들은材木을떼를매어다고 三百餘里順流에떠나려옵니다압헤가든나무떼를뒤로몬드롬리치고살가티달아가니우무슨矛盾한文野의對照이며가요? 無產者요寄生虫인나는果然不安을늣겻나이다 花開서부터緩步로十里雙溪寺를들어가니해는西山에넘어갓섯나이다 民世兄! 雙溪寺노華嚴寺同様으로雜遝일것은想像하시겟지요? 鼓生 廣大 북 장고 노래소리가 여긔저긔서나고 入嶺南事人이醉比한天幕친臨時店에는酒醉한客들로 소래 酒酊 車까지各色사람들이 뒤엿어지져서 노는양

은 實로어수선한極樂世界이엇나이다 從容히國師庵에서一泊하고翌日다시六祖頂相塔을모신古僧堂에로내려오니 意外에富裕한二三知友는邂逅하게되어 五六日동안은八字에업는 누린조아느라生涯는맛보왓나이다 눈은鼓生에게로가고 마음은天王峰上에잇스니 이때의나의머리는얼마나煩惱하엿겟습닛가? 꿈에간새악시모양으로 自由는그비들에게빼앗겻섯나이다 겨우二十八日에야 옷決定하엿는데 適日晴明하든日氣가 그날부터흐리기시작하야 시원은구름이한울을가리워또다시登山客을 威嚇합니다 그러나비를낫드라도괴어히올다가기로하야 雨具 防寒具 食料品 炊具 燈燭 望遠鏡 指南鐵 猛獸防禦무엇지冒險準備를단단히하야山寶에게지우고松亭朴兄과漢學家인竹圃任周鉉南狂李星老氏와學生朴泰家(松亭四弟) 合六人이登程하엿섯나이다

木浦에서도 新幹會支部
設置委員選定

木浦에서는金晃洙李儀珩崔景河等諸氏의發起로去七日竹洞三山醫院에서新幹會木浦支部設立準備會를開하고左記各項을決定하고同十時에散會하얏다더라(木浦)

◇決議事項
一、準備委員으로金晃洙李儀珩崔景河李?煥五氏를選定함
二、臨時事務所는竹洞三山醫院內에置함
三、會員募集方法은準備委員會에一任하고設立大會는五月中에開催하기로함

釜山陸上競技會
滿場盛況裡에終了

釜山西部體育會主催로第四回陸上競技大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豫定과가티去八日午前八時三十分부터釜山富氏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開催하엿는데花火의軍號로數萬群衆이入場後大會長金?孝氏의意味깁흔開會辭로써猥風綠陰下에活潑하고壯快한氣象으로形形色色의競技 八十四에나우어次例대로秩序整然하게進行하엿는바이大會의幹部一同은第四回인만큼여러가지缺陷을補하야遺憾업기를期하고모든準備에最善을圖하엿슴으로조금도會場의紊亂이업시時時大會報를發刊하야人山人海를일운觀衆들로하여금一層趣味를돕고勇敢한選手들의競技와滋味津津한遊戲에는四面에두에세觀衆들의拍手喝采聲은끈일사이업시元氣조케뚝고굴니는그氣像은一大壯觀을呈하고同午後六時頃에閉會하엿는데그中마라손競走는中島町停留所에서高等女學校를돌아相生館前外지인데午前八時四十五分에一齊히出發하얏는바一着은同九時一分에鄭德明 二着 吳聖根 三着 李舜景 四着 裴璧章諸君이라더라(釜山)

羅州松竹里 比米組好績

全南羅州郡旺谷面松竹里에서昨年부터有志三十餘人이會合하야吾人의生活은一刻一刻退襲하야가는現況을보고未來의萬一을圖코저勤儉貯蓄을目的하는比米組合을組織하야組合員各戶에人口比例로每食時一人當一匙式의米를集合하야伊來二年間貯蓄殖利한바今日에는莫大한資本이되어不遠한將來에는相當한金融機關이되리라는데幹部諸氏는熱烈한努力으로組合의擴張을圖하다하며現在役員은如左하다더라(榮山浦)

▲組合長金東璨▲理事金東根金東洸金東佑▲顧問金樺集金應天金南華金東榕金東賢金東澈

安城版 發行準備
各面實地踏査

本報安城支局에서는安城地方에人物風土와名勝、商業等其他各項事情을世界的으로紹介코저安城版을發刊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本支局에서는우리社會의만흔福利를주는各種事業의卓越한效果와斯界에重鎭으로奮鬪努力하는黨志家의優秀한功績其他倫理上으로나道德上으로一般의模範될만한人士를一一히禮讚하고그와反面으로우리社會에對하야直接、間接으로無限한害毒을끼치는亂倫悖德의蕩子와醜類를一一히摘發하야嚴正한論評을나리는同時에半萬年由來의偉人傑士의偉功偉德과勝地名區의玄妙한神秘를露出코저各面各里를細密히踏査한다는데踏査委員은同支局記者金英基、李鳳載兩氏가去七日에出發하엿다더라(安城)

木浦少年團 發會式盛況
警察高壓非難

木浦少年團은昨年十一月中에創立된以來非常히發展되는中인데同團에서는五月八日을期하야盛大한發會式을擧行하기로하고旗行列과紀念式其他餘興의準備에團員全部는約一個月前부터大大的으로活動奔忙中이엇든바突然히當地警察署에서는同團幹部를불러旗行列과團歌와發會式及餘興에一般傍聽을絕對로禁止한다하엿스나傍聽禁止를모르든一般父兄과市內의來賓은雲集하야立錐의餘地가업는大盛況裡에奏樂

國歌로서開式을宣하매臨席警官으로부터傍聽禁止를命함으로臨席警官에게傍聽禁止理由의質問이續出하야한참동안混亂에빠지다가傍聽客은退場을不肯하고高壓으로解散하엿든바結果同團代表委員崔五烈氏와朴琮淳文煥淳氏가警察의命令에不服한다하야檢束되엇다는데地方人士는이러한警察의處置에對하야非難이만타더라(木浦)

新昌漁業組革新
共同販賣所外지設置

咸南北靑郡新昌漁業組合에서는本年부터組合의內容을一層革新하야共同販賣所를設置하엿다하며水產技手를採用하야漁業物의製法을無料敎授하며漁業을獎勵키爲하야組合員에게低利로資金을貸付하리라는바一般은그것을幸運으로깃거한다더라(北靑)

長湖院靑年臨總

長湖院靑年會에서는去七日午後二時부터當地普通學校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委員長金熙昶氏司會下에先般經過報告와將來進行方針에對하야愼重討議한後左記事項을決議한後同五時頃에閉會하엿다더라(長湖院)

◇決議=會則一部改正의件 新入會員通過의件 維持方針의件

城津荷川幼稚園
馬氏家의敎育熱稱頌

城津郡鶴東面荷川洞에잇는荷川幼稚園은洞內有志馬東讓、馬晩鋪兩氏가自己의財產을全部獻納하야經營하는데昨年二月開園한以後漸次擴張에努力하엿슴으로園務가날마다進興하든中前記馬晩鋪氏는不得已한事情으로얼마동안辭退하엿다가이제는다시繼續하여前보다同園經營에힘쓰게되엇다는데이幼稚園은더욱基礎가튼튼하게되엇스며發展될希望이만타더라(城津)

報恩世中里 夜學會開設
生徒六十餘名

忠北報恩郡馬老面世中里耶蘇敎會에서는無產男女兒童의文盲을退治키爲하야本會堂에夜學會를開設하엿다는바男女兒童이六十餘名에達하고全相錄、全容成、金善生三氏가無報酬로敎授하여간다는바社會一般은稱頌이자자하다더라(鳥致院)

羅州勞聯 夜學運動會
來十五日開催

全南羅州勞働聯盟의經營인羅州勞働夜學院에서는배우고자하나배울수업서街路에彷徨하는兒童百三四十名을募集하야三四年間을敎育하여오는中 좋은成績을내엇는데三春을期하야兒童의興趣를도을기爲하야來十五日羅州靑年會廣場에서第二回春期大運動會를開催하려고한다는바무엇보담觀客이多數參觀하기를바란다더라(羅州)

鎭南浦市民 運動任員會
進行事項決議

旣報=來二十一日鎭南浦公設運動場에서開催하기로된鎭南浦市民大運動會任員總會는豫定과如히去五日龍井里物產商主組合會議室에서開하엿는데當日會務에紛紛하엿스나結局男子團體競走에授與하기로하고大會進行과競技에關하야다음과가티決議하엿다더라(鎭南浦)

◇決議事項
一、大會參加申請은團體本位로하되鎭南浦에在한靑年宗敎社會及同業組合等의各團體로함
一、競技選手는大會에參加한各團體를通하야申請하도록할事
一、申請期日은五月十二日外지로함
二、申請場所는新興里三崇學校로定함

白山靑年會總會

咸北鏡城朱南白山靑年會總會는去一日當地龍田에서開하고臨時執行部로議長鄭樞植書記張河經君을選擧한後順序에依하야經過報告와決算報告가잇슨後本年度歲入歲出豫算案通過가잇고左의事項決議가잇섯더라(鏡城)

◇決議=月南李商在先生追悼의件 匿名組合產業協同社에關한件 會費徵收方에關한件 當面問題에關한件

栽寧勞友會定總

黃海道栽寧郡背石頭에事務所를둔思想團體勞友會에서는去一日同地盧鎭世氏家에서定期總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討議決定하엿다더라(栽寧)

◇決議=會館移轉의件 新入會員承認의件 文庫設置의件 委員選任의件 朝鮮農民社支部主催의講演會後援의件 其他

錦山丁卯團 創立紀念音樂會

全北錦山郡內錦山丁卯團에서는去七日錦山靑年會館內에서創立紀念으로男女音樂舞踊大會를開催하엿는데東亞、本報兩支局의後援이有하엿다하며入場을謝絕하리만큼立錐의餘地가업시大盛況을呈하엿스며即席에서義捐도遝至하엿다더라(錦山)

甕津龍湖島 水產校落成
總工費一萬三千餘圓

黃海道甕津郡龍湖島는西海岸에突出하야屈指하는良港일뿐아니라每年春夏秋三節에亘하야石首魚其他雜魚에產額이十萬圓以上의巨額에達하는寶庫이나水產業은發展케할만한機關이無함을一般이遺憾으로늣기고昨年四月에龍湖島에公立水產補習學校를設立한後昨年에生徒三十五名今年에三十五名을募集하야當島私立光盛學校內假敎室에서水產에對한專門知識을敎授하야오든中昨年가을에敎舍新築을期하고道에서一萬五千圓의補助를밧고其餘는甕津郡東南面에서負擔하야昨年十月十五日부터工事에着手하여去三月三十日에竣工되엇는데總工費一萬三千三百五十圓으로事業이竣工하야落成式을去四日午後二時에同校內에서三木校長의司會로擧行하게되엇는데黃海道知事와甕津郡守崔相敦氏의告辭와祝辭朗讀과工事報告等으로式을終了하엿다더라(甕津)

韓弼鎬氏의養蠶熱

振威郡北面萬串里韓弼鎬氏는十有年來養蠶에特히留意하야오든바今般費用全部를自擔하야女子蠶業傳習所를設立하고無料로每年女子十五名의傳習生을敎授한다는데將來有望함은勿論이요一般人士는氏의稱頌이藉藉하다더라(烏山)

玄昌燕氏의特志

咸北吉州郡吉城面吉北洞公醫로잇는玄昌燕氏는同面城峴幼稚園에對하야熱心援助하는外每月五圓式으로同園의經營에補助하며同郡內에잇는各團體에도誠意로援助하야一般은그特志를稱頌한다더라(吉州)

東濟醫院長慈善
間島石峴

間島石峴東濟醫院長洪範陳氏는昨年冬期에地方住民과共히院友會를組織하야院友三百餘名을募集하고入會金一圓式徵收한後院友에對하야十圓外지無料治療를하엿스며地方警察에서는詐欺라하야取調하야본結果果然慈善事業임으로돌이어稱讚하엿다고(鍾城)

城津普信學校遠足

城津旭町普信學校五六學年生徒五十二名은同校敎員二人의引率로去四日午前吉州行第一番列車로北朝鮮의名山인七寶山을向하야出發하엿는데往復四日間豫定이라더라(城津)

迎日靑年會 勞夜修業式
지난六日盛大히擧行

敎育機關의一部分인迎日靑年會勞働夜學이創設된지는지금으로부터三年前인데其間經費困難으로同會委員들의貧弱한주머니를數十次나기울이엇고社會各方面에深厚한同情을救乞한것도한두번이아니엇스며더욱히當局의注目을바더所謂『不逞鮮人養成所』란各種의외지들어가며千辛萬苦로今日外지持續하게되어今年에비로소四五十名의修業生과數十餘名의學力優等精勤生을내인바去六日該會講堂에서證書授與式을擧行하고義務敎員金丙後君의式辭를비롯하야李鍾哲君의學事報告金和鋼君의證書及賞品授與와李載雨君의訓辭가잇슨後勞働夜學萬歲三唱으로閉式하엿다더라(浦項)

信成學校修學旅行

義州郡批峴面竇馬洞信成學校生徒百三十餘名은二隊로分하야一隊三十餘名은鄭向仁金熙泰兩氏의引率下에去四日午後七時三十分車로名勝地인平壤을向하야出發하고二隊百餘名은其翌日에姜子活金演鉉兩氏의引率로近地白馬山을探査하고一隊와二隊는當日에다各各無事히歸來하얏다더라(批峴)

三陟佛宗紀念講演

五月一日午後九時부터中外日報三陟支局主催로三陟佛敎布敎堂內에서李相雲氏司會로메ー데이紀念講演會를開催하엿는데降雨에因하야大衆의集合이적엇스나演士들의피로는熱辯은聽衆으로하야금만흔늣김을주엇스며同十一時에閉會하엿는데演士와演題는다음과如하엿다더라(三陟)

演題 演士
▲오날을當하야 金永達
▲人生과勞働 尹台鉉
▲우리의것을찾자 金元壽
▲勞働은神聖하다 李冠林

地方集會

●城州公普生修旅=城州公立普通學校에서는年中行事로春秋로分하야每年二次式修學旅行을行하든바今春에는去七日에開城으로旅行하엿다더라(汶山)

●浦項少年會定總=咸南利原郡南面浦項少年會에서는去二日午後八時에浦項靑年會館에서辛錫君의司會로알에와가튼事項을討議하엿다고(利原) ◇決議=分裂分子의件 調査部增設의件 樂器購入에關한件 事業經過의件 當面問題의件 任員改選의件 ◇幹部=執行委員長辛錫 庶務部辛宗敬 會計辛宗敏 調査部辛承任 同委員金龍漢 辛武? 辛承五

●白雲基督勉勵會=忠北沃川郡靑山面白雲基督靑年勉勵會定期總會를去月卅日에開하고經過報告와事業進行에對한討議가잇슨後任員을改選하엿다고(鳥致院)

●瑞穗鄕約發起會=全北沃溝郡瑞穗面에서는지난六日面內馬龍里官元里鄕約會를合成學院講堂內에서開하고各里鄕約에對한諸般事項을滿場一致討議하엿다고(江景)

人事消息

▲金光氏(本報三陟分局長)商務를帶하고豐山甲山地方에出張中이든바去四日歸局(三陟)
▲金明吉氏(本社德川支局長)關西記者大會에參席키爲하야六日寧邊에(德川)

社告

本支局記者姜大遇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고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林鐘明
記者 郭鉦林
朝鮮日報三千浦支局 白

本支局에서收之島駐在記者金守翮氏는事情에依하야解任하고左와如히收之島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分局의名稱 收島分局
一、分局의位置 釜山府瀛仙町三一三番地
一、分局員職氏名
分局長 劉三星
總務 金埈源
記者 金鈕
顧問 趙斗夏
顧問 高漢永
朝鮮日報釜山支局 白

本支局記者李哲仁氏는事情에依하야辭任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楊平支局 白

本支局에서翠野分局長金亨福氏는事情에依하야解任하고左와如히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翠野分局長 柳光烈
朝鮮日報海州支局 白

俗離徒步見學團男女募集

時日 陽五月十六日(四日間)
申請期間 五月十五日外지
申請場所 本報芙江支局
會費 一人 三圓
集合場所 本報芙江支局
出發時間 五月十六日午前六時
主催 本報芙江支局

立夏를압두고 奪作한郡廳
이러나빗어더소작료를 물고나니소작권을빼어
小作人은失眞

황해도송화군 련방면마산리(黃海道松禾郡蓮芳面馬山里) 유서로(兪瑞老)는 농촌사람으로 농사일도볼고하고 매일 송화읍에 들어와서 취한사람도갓고 정신이상이된 사람도가려 지나가는 사람을보고자긔소작권을찻도록 하야달라고하야 보는사람으로 궁측한 생각이나게한다는데 이 켜그내용을 자세히듯건대 대정십사년도의 군령에서 관리하는 학교논(學校畓)일천사십팔평을 소작료 륙십원륙십전에 경쟁입찰(競爭入札)하얏고 또한 십삼년도에 타인소작료미납금 십구원오십전도고리(高利)노빗을어더 납부하고 경작하야 십사년도에 추수는저우열섬을어더 하섬에팔원식을밧고 팔아서 소작료도부족 되는것을 겨우 납부하고 빗진십구원오십전은 갑지도못하고 작년도에 경작을한즉 또한충재(蟲災)로저우여덟섬을어더 소작료도못물으도 군령에 들어와서 소작료를 감하야달라고 수삼차애원한즉 군당국에서는 감해주지못하겟나고 하드니 지난사월 이신오일에는 그러면 이십오원륙십전은 감하고 삼십오원만 납부하라함으로 즉시납부한즉 이제부터는 소작을그만두라고함으로 그와가티 실진한 사람가티되엇다더라

坡州에雹災 一般被害不少
돌변한긔후와각종련재
◇農村憂慮가不少

지난 오일에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坡州郡泉峴面金谷里)일대에 약삼십분가량이나 우박이계속하야왓슴으로 보리밧을위시하야 채소의모사자리에피해가 막대하다는데 더욱 념려되는바는 긔후의돌변으로 대이차의박재나업지안흘가공포한다더라(문산)

不正入學者 退學에處分

대판고등학교(大阪高校)에서는 입학시험문제누설사건이발생한 이후로 부정입학자를 엄중히조사한결과 그일에 수명의학생에게 퇴학처분을하엿다더라(대판)

竊取한拳銃을武器로 廿五個處에犯行
훔친권총을무긔로강도질
送局된東京强盜의罪狀

금년일월에 동경시내의 유수한 부호의가택에 침입한 권총강도 최석봉(崔錫鳳)(三九)차상운(車相云)(二四) 등두명은 그동안 엄중한취됴에 모든죄상이 명백하게 판명되엇슴으로구일오전에강도,유가증권위조죄로 검사국에 송치되엇는데 그들의자백한바에의하면 그범행은 매우 대담하엿다는바 데놀작수로 림(林)총포뎜에 잠입하야 권총을 절취한후 그것을 무긔로삼아유도(有島)생마(生馬)씨집에침입하야 일천륙백원을 강탈한것을 비롯하야전후이십오개처에서강도를범행하엿다더라(동경)

學生科學定總
임원개선과가타결의

시내견지동에잇는 조선학생과학연구회(朝鮮學生科學硏究會)에서는 지난달일일오후 한시부터 계동배종교낭에서 데오회뎡긔총회를개최하고 압에와가튼 임원개선과 결의가잇슨후 동오시에폐회하엿다더라

◇任員 庶務部 韓一淸 金奎鳳 朴昇俊 金泰來 圖書部 崔榮元 金虎 編輯部 元會麟 趙誠元 元日 李二道 康禹範 調査部 朴根永 曹秉寔 朴燦式 事業部 徐宗實 全顯鍾 朴一龍 尹甸洙 金淵河

◇決議

一、月捐金徵收와常務委員任置의件

一、講演開座開催의件

一、學校當局으로 外本會員에게 社會科學硏究를한다는口實로 威脅하는데 對한對策講究의件

一、園遊會를永登浦에서開催하기로하고 來十五日午前九時堅志洞同會館前에集合하야出發하는바會費는三十錢

其他

갈돕會總會
각부위원개선

팔일오후두시에 고학생 갈돕회에서는 데십사회뎡긔총회를 그회관안에 열고 회에대한만흔토의가잇섯스며 신임위원의 일홈은다음과갓다더라

經理部 朴平桓 孫秉錫 李啟官 智育部 崔永植 金明根 調査部 申南均 金東春 勞働部 姜熙秀 金昌盛

質問委員選定
이운면장배척문데로

경남거제도이운면(巨濟島二運面)면장지악강(?)을배척코저 면민대회를 개최하엿다 함은이미 보도하엿거니와 동대회에서 선거한 도군당국에 질문할질문위원리정식(李正植)진홍긔(陳洪基)박학중(朴學重)사씨는 지난오륙일 아츰누리도군청을방하야질문의길을떠낫다는데 일반면민들은 그런비인도뎍행위하는자에게면장을임명하야 누단히 이운면의 평화를교란케한도군당국을비난한다더라(거제)

近來稀有의大賭博團 去來額이萬餘圓
유인된명러구리부호는 삼사차에만여원을일허
內面에는詐欺도잇서

경긔도장호원(京畿道長湖院)경찰관주재소(警察官駐在所)에서는 지난이일에 당디유수한상노가이며 부호인박화춘(朴和春)김동우(金東佑)강영돈(姜永敦)외세명을체포하야 목하극비밀리에 엄중히취됴중이라는데 이제들은 바에의하면 전긔관원은 작년음력이래 략칠개월동안을두고 도박을 계속하여오면서 음성군 감곡면왕장리(陰城郡甘谷面旺場里)심봉섭(沈鳳燮)(二五)이라는어리석은부호를 유인하야 그도박판에들게한후 전긔 심봉섭의돈만빼기로 공모하고 심봉섭과가티수삼차 계속하야 도박을하야그득실이 만여원에 달한다는데그내면에는 사긔뎍(詐欺的)기분도업지안타하며 검거(檢擧)의손은 의외의방면까지미칠지도모르리라더라(장호원)

鎌으로胸部亂刺 弑父한惡子
자긔를사람대접안는다고
實妻實弟까지殺害하려

보령군 주포면봉당리 륙백사번디(保寧郡周浦面鳳堂里六〇四番地)에 사는 김수봉(金水鳳)(三一)이라는자는지난팔일오후열시경에자긔부친당년칠십일세되는 김성도(金性道)를 참혹히 살해하엿다는데 그자세한 내용을들은즉 김성도는 자긔의안해김수봉의모친이 죽은후 즉시안해를다시어더 살게되엇슴으로 그안해에게도 자식이잇서 장성하야 별이업시 자식형케를 사랑하던바 자긔의서자가 장성하엿슴으로분호를시키고김성도는항상자긔서자의집에가서잇섯스나 적자인김수봉은간질이라는중병자일뿐아니라사람이투미하야생활을 할도리가업슴으로 그를 불상히여기어 시장마다 몰아다니며 포목장사를하야 그자식들을 벌어먹이던중 김수봉을 더욱불상히생각하야 날마다가서 보살펴주든바 그날도 자긔적자김수봉의집에와서 살림을 보살피며자긔며느리를 보고 하는말이 너의남편자는병객일뿐아니라사람이 똑똑지못하니 그를 불만히생각말고남편업는 과부도 사는것이니아무조록 살림사리를 잘하라고여러가지로 교훈일해에 자긔아들되는 김수봉이가 밧게서그 말을듯고 자긔부친은 자긔를사람으로녀기지 아니한다는 감정이 생기어 자긔부친에게 몹슨말을하더니 밧게서 낫을갈기로 자긔안해가 나가서 낫을저누려가는데 낫을갈어 무엇하라느냐한즉 김수봉은 하는말이 너녀먼저 죽여버린다 함으로 그안해는 질겁을하야 피신한사히에 방에들어가서 자긔아비를 낫으로 흉부와 여러군데를찍어서 참혹히살해하고는 밧게나오지도아니하고 방문을걸어잠그고 그이튼날아츰까지잇는것을 동리사람들이 발견하고 붓들려하엿스나 낫을들고 방속에잇슴으로 엇지하지못하야 집을에워싸고 잇섯더니 자긔동생이 이소문을듯고 차저와서 돌아다니나 참아미워서 밧게서 주저하던중 자긔아오가 밧게온것을보고 그제야그자는 자긔아오를 마저살해하라고 쪼처나오다가 동리사람들이 붓들려함으로 자긔아우를 살해하지못하고 도망하다가 동리사람과 경관이 또차가서송림속에은신한것을 칠일오후한시경에데포하야즉시보령경찰서로압송하야취조중이라더라(보령)

光州局員 公金을橫領
필경톄포되엇다

광주우편국(光州郵便局)의 데제모(山口某)는동우편국 위톄계(爲替係)에 근무하던중 엽나천곡성우편소(谷城郵便所)에서 과초금(過超金)일천원을 가격표긔(價格表記)로서들어온 ... 출사긔가 숙직당번인것을 긔화로 그것을개봉하야 전긔금액을 횡령할양으로 전긔 가격표긔와 함께온 서류도전부개봉하야 다시서류를 작성한후 광주우편국소인(消印)을 놀니 광주라는글자를 흐리게하야곡성(谷城)으로부터 송달한것처럼 만들어서 일시범행을속여왓스나 그후 호화생활을하는 동시에 전긔의 동인은 신분에맛지안는 사치로관서에인치취됴를 당한결과 모든사실이판명되엇다더라(광주)

甕津學友本社見學

경성에와서 류학하는 옹진학우친목회원(甕津學友親睦會員)일동은 구일오후다섯시경에본사를견학하고돌아갓더라

俗離山見學

꼿이떨어지고 새잎히피어 어우러진 경개절승한고찰을 견학하기위하야 금반본보 부강지국주최로 루백년의력사를가진 경개절승한 보은속리산(報恩俗離山)견학단을 조직할러인바시일은오월십륙일 오전륙시에 도보로사일간 예뎡으로 출발할러인바 일반은다수히 참가하여주기를 바란다더라(부강)

太西洋橫斷 飛行巴里發

불란서비행군의화형인 낙난조세대위와「코리」대위와는 대서양(大西洋)을 횡단하야 파리와뉴욕사이를 비행키도하고 팔일아츰다섯시 이십분에 파리교외의 비행장을 떠낫다더라(파리)

豫言者로詐稱하고 多數金額騙取
어리석은시골녀자를속여서
犯人은七旬眼廢老婆

자칭대구수뎡(大邱壽町)최학이(崔學伊)의집에거주를두엇다는 노파 김곤해(金坤海)(七二)는 장님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외하빈면(河濱面)부근에서자긔는텬변디이(天變地異)는물론이요삼라만상을 예언할수잇는선인(仙人)이라 자칭하고만흔시골녀자를속여서 다액의금전을 편취하고돌아다니다가필경소관대구서에테포되엇더라

國境對岸牛疫

평북창성군 창주면대안 관전현대아하(平北昌城郡昌洲面對岸寬甸縣大雅河)방면에요사이우역(牛疫)이 발생하얏는데 그중 튀머되는 죽엇스며 장차더욱 만연될징조가 잇슴으로 평북도당국(平北道當局)에서는조선안에들어올것을 념려하야 경계에로력한다더라

江陵서禁止
어린이긔념조차

강릉소년회 주최로 각소년단데와 련합하야오월일일 어린이날을 긔념하려고 긔행렬과 어린이대회 아버지대회를 당일간거행키로 준비하야오든중 경찰서에서는리유도업시 금지를 시킴으로 주최자측에서 그리유를질문하얏스나 결국은 금지되엇다더라

※……날은차차더워간다

荷車에少女負傷

고양군숭인면돈암리(高陽郡崇仁面敦岩里)사백오십칠번디 마차부 만도만길(挽籠萬吉)(?)은 팔일 오후한시경에자긔의마차에 짐을실고 황금뎡(黃金町)오뎡목 이백삼십일번디부근을통과하는중 길에서작란하고잇든 황금뎡오뎡목이십륙번디 가등(加藤)의 둘재딸(요네)(四)를치어서 왼쪽다리가세고 피가매치어 중상을당하얏는데 즉시 부근외과병원에서응급치료한결과약이주일간이면완치되리라고

自動車에 老人이轢傷
관계자취됴중

장곡천뎡(長谷川町)사십이번디 경성자동차부운전수 김태동(金泰東)(三二)이가 경긔도 데이백오호 자동차에 승객부의 원의사(醫師)를 태우고 지난팔일 오후네시경에 고양군숭인면 신설리(高陽郡崇仁面新設里)부근을질주하든중 동리 일백사십이번디 박흥문(朴興文)이라는 로인이 자동차소리에 놀내어 정신을못차리고 이리저리 피하라고 창황이 뛰다가 필경자동차에부듸쳐 왼발을부상 하얏슴으로 곳 즉시동대문병원(東大門病院)에다리고가서 응급치료를하는일편으로 관계자는 소할동대문서에서 취됴중 이라더라

自動車에衝突
이마를부상

시내장곡천뎡(長谷川町)사십이번디 경성자동차부(京城自動車部)운전수박흥성(朴興成)(二一)이가 칠일오후네시경에 동소문부근으로부터 종로사뎡목을 향

春日交通複雜과 危險한路上遊戲

生活難으로棄兒

팔일오후다섯시삼십분경에시내서린동(瑞麟洞)김동청(金東?)의 집대문안에 생후이개월쯤되어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버려잇섯다는바 몸에는 이월이십륙일 오전열시생이라고쓴조희쪽각이 누구의 소위인지 그집의형편을잘아는사람이 생활난으로 그리한것갓다하며 전긔 어린아이는경성부로 인도하엿다고

演藝와映畵

朝키네第五回作品 『금붕어』撮影開始
특작품으로전력을경주

「롱속에든새」(籠中鳥)「아리랑」「풍운아」(風雲兒)「들쥐」(野鼠)등의 걸작품을 계속발표하야 조선영화계에 가장견고한 디위를 점령하게되어 장래의촉망을 가장만히밧고잇는 시내욱뎡(旭町)조선키네마에서는 그동안 동키네마 데오회작품을 제작하려고 그각본을 선택하든중 최근에 투고(投稿)들어온 영화각본(映畵脚本)중에서 『금붕어』라는 각본이당선되어 목하각색중으로 느저도오는십이삼일경에는 촬영을개시하리라는데 각색(脚色)은 역시 춘사(春史)감독(監督)은김창섭(金昌燮)주연(主演)은 나운규(羅雲奎)주삼손(朱三孫)김정숙(金靜淑)의제씨라는데 동키네마에서는 『금붕어』를 특별특작품으로 전력을 경주하는 중이라더라

(3)

映畵俳優巡禮
朝鮮키네마
李慶善

(年齡)스물두살 학교를마치고곳시영화계로왓습니다 ... 운룡(냥기) ... 문이 ... 서운것,한생활수 ... 조와(苦) 미래의 몽상길에(第一조와) 련인의청금옷 ... (排斥者) 나와가 ... 디에잇고나 ... 以上

惡農監의弊害로 地主에게警告文
소작권관리를긔회로하야 농민을롱락하야사복채워
一般農民極度憤慨

재령군하방면원고리(載寧郡下方面元古里)(?)방면에잇는 사사오(?)와이래에 소작권관리를 모리하는관으로 녀영재(呂泳宰)씨의 농감 최석권(崔錫權)은 경민으로 잇는 사사오년이래에 소작권관리를 모리하는긔관으로 녀기어 동리농민을 롱락하야금권이나 농품을 리득을바드며 소작권을 함부로 권농하야사복을채우는비행이 만흠으로동리농민들은 이런악농감을 그대로 묵과할수업다 하야 선후책을 강구한결과 위선디주인 민영휘씨에게 농감을 상당히커치하라는 경고문을발하기로하고 십여원의 련서로 경고문을발송하얏다는데 당디에 소작인들의 아모것도 등의조커가 업슴으로 작인들은 재차 경고문을 재차 발송 하얏다더라

一、昨年봄에는小作權을줄터이니돈을내어달라하야同里金某와閔某에게서各各幾十圓式借用하야後還償치아니할뿐아니라도자조歸獲을시키며閔某에게는旣許한小作權을昨年봄에西圓씩리家屋을小作權을쥐어준다고千圓에팔어먹엇다가昨冬에다시自巳가四圓에산것

一、金明植金徳淳에게는엇(餡)을피다주면小作權을許與하마하야엿을바더먹고도小作을주지안흔것

一、今年봄落種期에는尹文明閔泳先에게「감에집」과落種外시한後일에도不拘하고何等의過失업시小作權을移動하엿스며其外에도不當한行動이만흠

訓導의身分으로 松板竊取코辭職
양주룡두공보교훈도가
從前부터品行不正者

요지음양평군 청운면 룡두공보(楊平郡靑雲面龍頭公普)의최모(崔某)란 교원은 한동안경찰서로 군청으로 불려다니다가사직원서(辭職願書)를장관에게바치고 붓그러운낫으로 학교를 등지고 나갓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들으면 전긔 룡두공보에서는 교장사택(校長私宅)을신축하기 때문에 지난달십오일 밤사이에그 목재(木材)중에서송판(松板)십여쪽(價格百餘圓)이 업서젓슴으로 그건축의 책임을마튼청부업자(請負業者)를비롯하야그 송판을 찾기에 매우 고심중이든바 몃칠후의외에 그학교숙직실(宿直室)천정속에서 그송판을 발견하얏는데 그것은전긔 최모가 숙직하든날밤에 그와가티감추어둔 사실이 판명되어그 학교교장(校長)과 당디 주재소(駐在所)에게 매우에게지흥신맛고관계당국에 와 다니다가 할일업시사직하고간것이라는데문데되는 최씨는 전부터 학생을부로 ... 리기를 잘할뿐아니라 기외에도부엇부엇하야 교원신분으로서의 불미한일이 종종잇섯다고(양평)

松興溫泉探勝期

성진 송흥동(城津松興洞)에잇는송흥온천(松興溫泉)은 성진부외의 명소로 언제나 탐승객이 끈치지안는곳으로 지금은 사구라가 만개한때임으로 더욱탐승의 자미가 만흐리라는데 오월일일 부터 십오일까지의 이주일간은 임시탐승의 절호긔회가되리라더라(성진)

病苦와生活難으로 深夜投井自殺
자식과남편이잠든사이에
疊出하는生活難의悲劇

평북박천군 청룡면대화동(博川郡靑龍面大化洞)에 원적을두고 지금 재녕뉴화리(載寧柳花里)정원식(鄭元植)의집에류하면서빗사사룡하는장찬주(張燦柱)의처 리선재(李善在)는 구차한 생활을하다가 수월전에 우연히병에걸리어 재녕 ... 에서 치료하다가 병세는컨연히 나흘희망이 업슴으로 지난륙일오후 루시경에 자긔남편과 어린자식의잠든 틈을타서 우물에 싸저죽은 것을 사람들이발견하고 재녕서에 급보하얏슴으로 동서에서 현장에 달려가서 검진한후본부에게 인도하얏다더라

運動競技

大邱12A 平鐵6
都市對抗野球決勝

大每京城支局主催의都市對抗野球決勝戰인全大邱對平鐵線道戰은九日午後四時四十分京城運動場에서佐武(球)須田(審)平鐵先攻으로開戰된바第一回平鐵黑田本壘打와小西二壘打로二點을어드매全大邱四球와二安打敵失로一壘打로一擧四點을奪하고五回外지兩軍無得點五回平鐵金貞植二上直球와打로出한後三壘打를利하야二點을恢復하매大邱軍猛打續出하야一擧六點生還七回兩軍二點生還八回得點업시九回初에入하야平鐵九敗했스나萬事休矣閉戰六時四十五分

全大邱		平鐵
7 洪命善	35 打數 37	6 黑田
3 工藤	9 安打 8	4 戶澤
4 津田	2 犧打 2	5 吉田
6 坂戶	0 三振 6	7 金貞植
2 森川	4 四死 2	8 小西
16 森內	7 盜壘 2	3 原田
91 中村	5 殘壘 7	1 大非
5 梶原	5 失策 6	9 大和
8 高木		2 藤野

平 200002200=6

邱 40000620A=12A

徽文朝俱野球戰

徽文對朝鮮俱樂部野球戰은九日午後五時부터徽文球場에서金周鎬(球)李揆宰(審)로朝俱先攻八回까지四對四同點인바日沒로中止閉戰七時二十分

運動界動靜

▲普成專門蹴球團 九日朝八時五十分平壤에

月南先生追悼

옥천군청산면(沃川郡靑山面)백운긔독청년면려회(白雲基督靑年勉勵會)에서는 지난오월일일에 리상재(李商在)선생추도식을 다음과 가티 거행하얏다고

一、月南先生의略歷報告 朴昌鉉氏

二、追悼文朗讀 李基萬氏

三、追悼辭 李彩氏

四、追悼歌 一般

一、오후간묵상으로식을마치엇다는데 칠흑에 잠긴회중은 모다슬픈 눈물을 먹음엇섯다더라(조치원)

어린이날消息

『어린이』날紀念
포항서는금지

함남리원포항소년회(咸南利原浦項少年會)에서는가장의미깁흔『어린이』날긔념을 압해두고 모든준비에 분망히진행중이다가 돌연히 삼십일오후칠시에 리원주재소(利原駐在所)에서 『메데이』『세라』를압수하며 그회간부두사람을 래일주재소로 오라함으로 위선『세라』를 찻기위하야 간부신혁 신승각(辛赫辛承珏) 량씨가 가서 경무국량해가잇는것을 불구하고 오월일일 집회를 금지하고 전부금지하는 것이니 『세라』도 줄수업다함으로 다른도회에서는긔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는모양인데 이다방의압뎍(抑壓的)으로 이와가티 금지하느냐한즉 그래도 할수업다고 금지하엿다더라

어린이날紀念
옥구에서거행

전북옥구군서수면금동리(全北沃溝郡瑞穗面錦洞里)에잇는금호소년회(錦湖少年會)와 한장소년회에서는 지난일일 어린이날을 긔념하기위하야 수십인의 소년군은 선뎐『비라』를 배포하며 시내를 일주하얏다고

메ー데이紀念 강릉서도금지

강릉군(江陵郡)에잇는인쇄직공조합과인우회(印友會)와 자동차운전수로 조직된 친목회와의 련합주최로 오월일일 메ー데이를 긔념코저 당일 프로그람을작성하고 제반준비를하다가 경찰당국으로부터 금지하엿다더라 ... 간부를 호송하야 중지를시켯다더라(강릉)

彥根中學生盟休

일본언근중학교(彥根中學校)에서는교장배척문뎨로 분규를 계속하여오더니 구일에이르러 삼,사,오년생전부는 무긔휴학을 단행하엿다더라(언근)

휘파람

▲일긔평양에는버아난비가 오륙일동안계속하야대동강물이석자나 붓엇는데 별별풍설이 떠돌아다녓다▲주요한것은이번에 비가 이와가티 오는것은 평양종로에잇는 종각(鐘閣)을 대동문공원으로 옴기는탓인데 구렁이몃마리가다 나왓다고도하며 밟달린배암이 나왓다고도하며▲소복입은노파(老婆)가 꿈에현몽을 하드라는사람도 잇섯다하며 밤이되면 종노서울음소리가 난다는둥 풍설은덩굴처럼버더정말가티알게되엇고▲그리하야뇌성벽력이나리고비가그치지안는데종각을근본자리로돌오옴기기전에는비가개이지안흐리라고하얏다나▲그러나비가개엿스니 종각에부럿든 신(神)은 로염을 그치신모양인가? 종각도비에 젓는것이구찬어서 비를 그만오라고 하엿든가?▲그러면 평양은그리라치고라도 남조선금강(錦江)근처에는 물이멧두자나 붓고비는 여기보다더여러날왓다한다 그곳에서도 종각을옴겻든가!! 덕컨디바에는눈이왓다하니 그곳에서는 두손산(神)에게로염을바든탓인가세상은어부한세상

僧房悲曲

獨鵑 作

羅雲奎撮影監督

[1]

렬차안에서 (1)

「사파세계의 온갓번뇌를 실고 경은련긔를 토하고 잇는 긔차는 끗업는 황야(荒野)로 떠나보내는 운명의종은 울엇다」

봉천행렬차는 갓난아이의 첫울음가튼 긔적(汽笛)을 부산역에 남기고 무거운바퀴를 서서히굴리기사작하엿다 긔차는 구렁이가티 긴몸을꿈틀거리며 부산진을돌앗다 우편으로 원천히 떠르는 파ー란바다는 어느듯 슬그머니 멀어저버리고 좌편롱은산 마루테기에 쪼겨올라간무리의 납작한 초가집들이 흐릿한 한울빗헤서 마치수만흔무덤처럼 업되여잇슬뿐이엇다 나에게는 다만압만이 잇슬뿐이라는드시 모ー든것을 뒤로남기고 긔탄업시 긔차는 넓은들을바라보며 속력을노키 시작하엿다 삼동차실은 만원이엇다 지금까지 답답하게 찌흐리엇든,한울은이모양 저모양으로 ...

산들거리는 서풍에 맑아케씻기워서 오른편창으로는 다스한 봄볏이 앗가운드시 조금식흘러들고 외인편창으로는 은색비단을 길게편듯한 락동강(洛東江)의 물결이 아츰볏헤 번쩍이엇다

『은숙씨 저ー긔락동강이외입니다 그려』

지금까지 수선스러운 긔분에싸히어 무료이 창밧글내다보고안젓든 리필수(李弼秀)는 자긔엽헤안진김은숙(金恩淑)에게 이러케 말을건니고 그의동정을 살피엇다

은숙은 필수에게대하야 거의모욕에 갓가우리만치 맛업는표정으로 필수가 가르치는창밧글잠간내다보는척하고는다시 고개를 돌리어 그림처럼 단정이안젓다

불쾌한감정을 표현한 위대한마술가의 손에된 미인의조각(彫刻)가튼 은숙의 도스리고안진 모양을 어색히 바라보고안젓든 필수는 이어색한긔분을 호리여버리려는드시

『저락동강의길이가 칠백리랍니다』

하고말을 붓처보앗스나 불쾌한 미인의조각은 그래도 아모 대답이업고 다만차게 빗적이는맑은 두눈과 꼭다문 고은 입술이 ...

기리가못넘는 교의우에 살을맛대고안진젊은남녀의마음엇거 가아득히 머ー르리멀어저 잇는 것을 설명할수업는 무안으로 변하려는 색한감정이 무안으로 변하려는 ... 에 담배를꺼내어 부첫다

「가ー르게버무는 담배연긔는한숨의 그림자처럼 교의미테서 피어올랏다」

거미줄 뭉치가티도 은근한 필수의시선은그때도은숙의뒤를에서떠러지려하지 안엇다 은숙은부 손보기실흔듯 결홈피하려는듯처럼몸을 삭골리어 창밧글물하하고 안저서 파ー란강을내다보앗다 백로의날개가튼 하ー얀돗이 머ー르리 보이는락동강 차창에매달리어서 현저가지나 떨어오는락동강 빌미트도 슬며시긔어드는다가 슬며시 떨어저서 손질하며 다라나는 락동강

여러가지의 락동강을 취한듯내다보는 은숙의뒷모양을 체면업시 바라보고안즌 필수의가슴은 속못차리는애욕에라울낫다 긔차가 삼랑진을지나자 식당안이가 점심준비가되엇다는 뜻처를물도락다 필수는 무슨긔회나 온드시 물아안즌은숙을가장 부드러운 소리로 불럿다

『점심안잡수시렴니까 잠간식당으로 가시지요』

『감사합니다』

은숙의 나죽한대답에 용긔를어든필수는 교의에서 벌어낫다

『어서가시지요 자리가했여야가지요』

『커는실습니다 혼자잡숫구오시지요』

『아 가려가서요 어서요』

『커는실습니다』

사양이라기에는 넘우나 쌀쌀한 대답에 필수는 더권할용긔를 일코 교의모서리에 손을대며 겨우 머ー하니 서잇셧다 긔차가 발로고개를내밀어비또는 삿다 필수는 무슨보복이나당한사람처럼 불쾌한얼굴을돌리며 식당으로 향하여갓다

李弼秀……李慶善

金恩淑……申一仙